

##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절 후 열셋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주일 예배시에 영유아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신청서를 데스크에 마련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비어 있는 날짜에 싸인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9월 30일부터 8주간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데스크에서 싸인업해 주세요. 강의 교재인 “다시 만나는 교회”도 신청해 주세요.
5. 다음 주일(9/3) 예배 후 파트럭(potluck) 식탁교제가 있습니다.
6. 다음 주일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7.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등부 모임이 9월 10일 예배부터 재개됩니다.
8.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8/30일: 박성조 집사                      31일: 김명하 형제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이건영 집사 / 설교번역: 최혜리 자매
- 9월 안내 및 봉사: 목자들 일동

### \*향후 목회 일정

- 부장회의: 9월 10일 예배후 @ 시나이룸
- 중부노회 및 목회자 세미나: 9월 11일-15일, 시카고 약속의 교회

교회세운날 2017.6.11    2023-35    8월 27일 (성령강림절 후 열셋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9월 셋째 주에 다시 만나요.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84:1-4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 기도 — 위충일 집사
- 찬송 —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 다같이
- 성경봉독 — 룻기 4장 14-17절 — 인도자
- 설교 — 생명의 회복자 — 김경헌 목사
- 봉헌찬송 —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 축도 — 인도자

# 목회칼럼 / 하나님의 음성 듣기

교회 옆으로 난 아스팔트 길을 따라 산책을 하곤 합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다른 감각보다 시각과 청각이 특히 자극을 받습니다. 시절을 따라 변해가는 들녘의 색깔들도 다채롭고 꽃과 열매들의 색채도 변화무쌍 하여 그것을 지켜보고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한 번은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시각을 소거하고 청각을 극대화하며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여름 한 낮의 들녘에서 열리는 대자연의 합창소리를 느끼며 걷는 것은 참 황홀합니다. 대낮인데도 귀뚜라미 같은 풀벌레들이 가을이여 어서 오라고 재촉이라도 하듯이 수천 아니 수만 마리가 울어대는 것을 눈을 감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벌레들이 이 들녘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건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풀벌레들의 합창에 어우러진 나뭇잎들의 수줍은 박수 소리는 풀벌레들의 합창에 대한 화답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차로 이동하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소리들이 건물만 조금 벗어난 자연 속에 이리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천체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름밤의 북쪽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들을 바라보기 위해 테라스에 가만히 앉곤 합니다. 아들 녀석들은 아빠만의 시간을 가만 놔두지 않고 테라스의 불을 켜고 아빠 무릎에 올라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조그만 백열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별을 선명하게 보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더군요. 눈을 감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던 풀벌레들의 합창처럼 간섭하는 빛을 차단하지 않고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감각을 죽이거나 소거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렬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소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간섭하는 내 마음의 온갖 잡스러운 소리와 욕망들을 잠재우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미다스는 디오니시스 신에게 환심을 사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복을 구해 얻어냅니다. 하지만 미다스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식사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빵을 집고 포도주 잔을 들었지만 그것마저 황금으로 변하자 미다스는 자신이 저주를 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망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면 우리는 진리에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이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결코 느낄 수 없고 우리의 소리를 잠재우지 않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